



나난만호(羅暖萬戶)(병마) : [조선] 함경도 삼수의 나난 군진을 지키던 중 4품 장수, 1881년에 신설, 서울과의 거리는 1,520리, 나난병마만호의 약칭.

나리 : [조선] 정3품 당하 관직자를 부르는 말.

나물이사금(奈勿尼師今) : [신라] 17代王, 김씨, 재위 256~402.

나울(羅兀) : [조선] 귀부인들이 나들이할 때 머리에 쓰는 것.

나장(羅將) : [조선] ① 전라도 나주영장(羅州營將)의 약칭, 일명 전라도 후영장(後營將). ② 사령(使令), 매질 담당, 귀양 압송.

나주감목관(羅州監牧官) : [조선] 전라도 나주에서 목장을 관리하던 중6품 관원.

나주목사(羅州牧使) : [조선] 전라도 나주의 정3품 수령, 서울에서 8일 길, 서울과의 거리는 742리, 고히는 금성(錦城), 금산(錦山), 발나(發羅), 통의(通義), 반남(潘南). 행정구역은 38面.

나주영장(羅州營將) : [조선] 전라도 나주 진영을 지키던 정3품 당상관인 장수. 일명 전라도 후영장.

낙사(落仕) : [조선] 관직을 파면 당함.

낙안군수(樂安郡守) : [조선] 전라도 나주 관내의 중4품 지방 수령, 서울에서 10일 길, 서울과의 거리는 798리, 고히는 부사(浮槎), 낙주(洛州), 분령(分嶺), 분사(分沙), 분차(分嵯). 행정구역은 7面.

낙점(落點) : [조선] 관원을 선임할 때 三望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 위에 임금이 점을 찍어서 뽑음. 이때 이름을 쓴 文書를 單子라 한다.

낙주(洛州) : ① 전라도 곡성(谷城)의 고히. ② 전라도 낙안의 고히.

난등량(難等良) : 전라도 고산(高山)의 고히.

난보(爛報) : [조선] 鮮報, 관보, 奇報, 조지(朝紙)의 별칭.

난전(亂塵) : [조선] 육의전 이외의 장소에서 밀매하는 상품.

난진아(難珍阿) : 전라도 진안(鎭安)의 고히.

날사(捺巳) : 경상도 영천(榮川) 또는 영주(榮州)의 고히.

남고별장(南固別將)(소모) : [조선] 경상도 전주의 남고에서 경상우수영의 수군 모병을 맡았던 중9품 군관, 남고소모별장의 약칭.

남관(南關) : [조선] 함경도 마천령 이남을 말함.

남대(南臺) : [조선] 학식과 덕망이 있는